

칼 멩거 研究⁽¹⁾

林 鍾 哲

칼 멩거(Carl Menger)가 1871년에 간행한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는 4부로 구성되는 멩거 경제학 체계 중 총론부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Erster, allgemeiner Teil”이란 표제를 갖고 출판되었다. 그러나 2-3년 후 바로 시작한 보완·확충작업은 제1부에 후속되는 제2부 소득이론, 제3부 생산이론, 제4부 현실경제론을 집필하는 데 바쳐지지 않았고 제2-3부는 단편적인 메모로 그치고 제4부는 아이디어조차 메모되지 않았다. 멩거의 서거 후 아들 칼 멩거(Karl Menger)가 편집·출판한 제2판에서는 제4장 제3절에서 ‘人間經濟의 두 가지 基本方向’을 다룬 것이 가장 중요한 수정이자 증보였었다.

이 대목에서 멩거는 초판에서 경제학적 고찰의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던 비경제제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다. 그러나 그는 비경제제까지 포함한 ‘一般理論’을 정립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멩거 이후 두 가지 기본방향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경제학자는 칼 폴라니(Karl Polanyi)였다. 그러나 그 역시 이 문제를 다룬 연구는 미완의 원고로 그치고 말았다. 이 논문은 멩거에서 폴라니에 이르기까지 멩거가 식별한 질약화·경제화 방향과 기술적·경제적 방향에 관한 연구가 어떻게 진전되었는가 하는 점을 중심으로 멩거 체계를 살펴본 것이다.

1. 生涯와 學問活動

1.1. 生涯⁽²⁾

칼 멩거는 안톤 멩거(Anton Menger)와 캐롤린 게르자벡 멩거(Caroline Gerzabek Menger)의 아들로 1840년 2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갈리시아(현재 폴란드 영토)의 Neu-Sandec에서 출생하였다. 匠人, 의사, 관리, 군인들을 배출한 명문집안 자손으로 아버지는 법률가였다. 본래는 보헤미아 지방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할아버지 대에 갈리시아로 이주하였다. 외조부는 나폴레옹 전쟁때 치부한 보헤미아 상인으로 서부 갈리시아에 큰 별장을 가지고 있었다. 소년시절의 대부분을 외조부 별장에서 보낸 멩거는 반농노상태인 농민생활을 소상히 보면서 성장하였다.

(1)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지원을 받고 수행한 것이다.

(2) 이 대목은 Hayek(1934) 및 Streissler(1990)에 주로 의거하였다.

남동생인 멩거(Anton Menger)는 『全勞動收益權』(*Right to the whole Produce of Labour*)이라는 저술도 있는 사회주의 성향을 가진 법학자로 칼 멩거와는 비엔나대학 법학부 교수로 같이 근무한 일도 있었다. 또 다른 남동생인 막스 멩거(Max Menger)는 저명한 사회평론가이고 국회의원이었다.

멩거는 비엔나대학(1859-1860)과 프라하대학(1860-1863)을 거쳐 크라코우(Cracow)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나 학위 취득 이전에 그는 이미 언론계에 투신하여 처음에는 렘베르크(Lemberg)에서, 나중에는 비엔나에서 경제기사를 썼고 비너짜이통(*Wiener Zeitung*)에는 시장동향에 관한 기사를 정기적으로 기고하였다. 평생의 주요과제였던 가격이론에 대한 관심은 이때부터 깊어져 갔다고 하이엑은 말하고 있다(Hayek(1934)). 사실 그는 1867년부터 가치론을 가다듬어 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오스트리아제국 총리실 언론과에 봉직한 일도 있었다.

1871년에 『國民經濟學原理』(*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의 간행을 계기로 비엔나대학에 초빙되어 1873년에 私講師(professor extra ordinarius)가 되었고 1879년에 正教授(chair of political economy)로 취임하여 1903년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교직 이외의 활동으로는 1876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루돌프황태자의 賓客(tutor)이 되어 1877-1878년에 유럽 여러 나라를 함께 여행하였다. 1892년에는 通貨問題委員會(Währungs-Enquete Kommission) 위원으로 위촉되어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화폐개혁문제에 관여하였고 1900년에는 오스트리아의회 중신의원이 되었다.

비엔나대학 교수로 강의하면서 1884년부터는 역사학과 경제학자들 특히 구스타프 슈몰러(Gustav Schmoller)와 격렬한 方法論爭(Methodenstreit)을 펴는 한편 1897년까지는 활발한 저술활동을 하였었다. 그러나 멩거는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침묵을 지키기 시작하였다. 1893년 이후로는 저술이 없었다. 1887-1897년간에 19편에 달하였던 논문발표도 1889-1915년간에는 고쳐 쓴 2편까지 포함하여 5편으로 줄었다. 1873-1897년간에 30편이나 되던 서평, 22편에 달한 시사논평도 1898-1909년에는 각기 14편과 7편에 불과하였다. 이같은 의문의 침묵을 지켜오던 멩거는 1903년, 서양학자로서는 아직도 한창 활동할 수 있는 나이인 63세 때 프리드리히 비저(Friedrich Wieser)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비엔나대학 교수직을 사임하였다.

에리히 스트라이슬러(Erich W. Streissler)에 의하면 당시 비엔나대학 정교수는 1987년 구매력으로 대략 10만 달러 정도 되는 봉급 이외에도 授業料(lecture fee)와 受驗料(examination fee)를 따로 받았는데 수업료는 학생 한 사람 앞에 1학기 2글덴이었다고 한

다. 멩거는 해마다 10강좌씩 담당하였고 학생 수는 평균 4백명 정도였다. 따라서 연간 총 8천굴덴, 1987년 구매력으로 대략 8만 달러를 봉급 이외에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경제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수업료를 감면해 주었으므로 실제 수입은 그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수업료까지 합한다면 그의 총소득은 지금의 구매력으로 20만 달러에 가까웠을 것으로 추산된다[Streissler(1990)]. 사회적 지위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 대접도 지극히 좋았던 비엔나대학 정교수직을 버리고 그는 거의 완전한 침묵 속에 스스로를 묻어버린 것이다.

1.2. 著述⁽³⁾

칼 멩거는 4권의 저서, 24편의 학술논문(개고한 2편을 포함), 34편의 서평과 31편의 시사논평을 생전에 발표하였다.

1871년에 『國民經濟學原理』를 출간하였고 1883년에는 『社會科學 특히 經濟學 方法에 관한 研究』(*Untersuchungen über die Methode der Sozialwissenschaften und der politische Oekonomie insbesondere*)를 간행하였다. 1884년에 다시 『獨逸經濟學系 歷史學派의 誤謬』(*Intümer der Historismus in der Deutschen Nationalökonomie*)를, 1892년에는 『金本位制移行論』(*Der Übergang zur Goldwährung*)을 저술하였다.

논문으로는 1887년에 “政治經濟學批判”(Zur Kritik der politischen Oekonomie) 등 2편, 1888년에 “資本에 대하여”(Zur Theorie des Kapitals) 등 2편, 1889년에 “經濟學科分類上の 諸特徵”(Grundzüge einer Klassifikation der Wirtschaftswissenschaft) 등 2편, 1891년에는 “슈타인論”(Lorenz von Stein) 1편, 1892년에는 “貨幣”(Geld) 등 7편, 1893년에는 “金프리미엄 및 平價 變更과 關聯된 오늘의 問題”(Das Goldagio und der heutige Stand der Valutareform) 등 2편, 1896년에는 “몬테 마르티니(G. Montemartini) 著述의 序文”(Vorwort: G. Montemartini, *Il Risparmio nella Economia Pura*) 1편, 1897년에는 “貨幣 및 貨幣制度”(Geld und Münzwesen seit 1857) 등 2편, 1900년에는 이미 발표한 “貨幣 및 貨幣制度”를 고쳐 썼을 뿐이고 1904년에는 “建物稅改正論”(Mündliches Gutachten über die Reform der Gebäudesteuer) 1편, 1905년에는 에팅거(M. Ettinger)의 저서에 실린 서문 Vorwort: M. Ettinger, *Die Regelung des Wettbewerbes* 1편, 1909년에는 앞서 말한 “貨幣 및 貨幣制度”를 다시 개고하였고 1915년에는 오이겐 폰 뵘-바베르크(Eugen von Böhm-Bawerk)에 대한 弔辭인 “Eugen von Böhm-Bawerk” 1편이 있을 뿐이다.

한편 멩거는 1873-1909년 사이에 44편의 서평과 30편의 시사평론을 발표하였다.

(3) 이 대목은 Barnett(1990) 및 Caldwell(ed.)(1990)을 주로 참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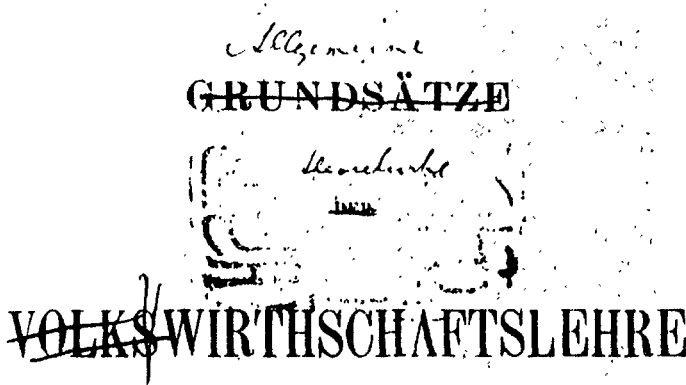
1898년이던 멩거 나이 58세이고 일체의 발표를 끊은 1910년에는 70세였다(1910년 이후에 발표한 유일한 글은 가장 훌륭한 후계자 중 한 사람이었던 뵘-바베르크가 죽은 것에도도하여 조사를 쓴 것뿐이었다). 따라서 서양학자들의 저술활동을 감안한다면 저술활동이 끊어진 것은 다분히 의도적인 중단이라고 볼 수 있다.

한때 수수께끼로 생각되었던 이 문제에 대하여 지금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는 것 같다. 멩거는 『原理』를 발간한 다음 바로 보완작업에 착수하였다. 사실 멩거는 1871년 가을에 간행된 그 저서를 “國民經濟學原理, 第1部 總論”이라는 표제를 달았었다. 멩거 서거 후 그 유고를 편집하여 제2판을 출간한 아들 칼 멩거의 말(제2판 편자 서문)을 인용하면 멩거는 『原理』를 간행한 2-3년 후에 수정증보용으로 백지의 間紙를 페이지마다 끼운 교정용 텍스트를 두 벌 만들게 하였고 저서 전체를 완성하기 위한 메모를 연필로 썼는데 『原理』는 전체를 위한 총론적인 제1부에 해당한다.

제2부는 자본이자·노동임금·지대·소득·신용화폐,

제3부는 실제적 부분 생산 및 상업의 이론, 생산의 기술적 제조조건, 생산의 경제적 제조조건, 생산에 있어서의 절감—상업·상업기술·투기·차익을 위한 매매·산매이론,

제4부는 국민경제 現狀에 대한 비판과 사회개혁을 위한 여러 제안으로 구성될 예정이었다[Menger(1923)]. 그리고 이같은 의욕적 계획을 반영하여 책 이름도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에서 Grundsätze der Volks까지를 한 줄(Grundsätze der), 또는 두 줄(Volks)로 지우고 그 대신 Grundsätze 위에 Allgemeine를, der 위에 Theoretische를 써 넣어 제2판을 “理論經濟學 一般理論”(Allgemeine Theorie der Wirtschaftslehre)으로 고치고자 하였던 것이다(<그림 1> 참조, Menger(1923), 일본번역판 역자서문). 멩거는 『原理』를 대신할 참다운 일반이론의 저술작업에 몰두하기 위하여 다른 주제에 관한 연구를 중단하고 급기야 비엔나대학 정교수직도 사임하였고 그보다 앞서 『원리』의 再刷와 번역도 못하게 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 칼 플라니는 “멩거는 초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그 增刷도 번역도 허가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는 이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비엔나대학 교수직까지 버렸다. 이 과제에 여러 번 되돌아왔다고 생각되는 50년 노력 끝에 그는 끝내 개정원고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것은 1923년 비엔나에서 유고로 출판되었다”고 말하고 있다[Polanyi(1977)]. 이 때문에 일찍부터 유럽과 미국의 주요한 경제서적을 빠짐 없이 번역해 왔던 일본 경제학회도 『原理』는 1936년에 가서야 처음으로 번역할 수 있었다. 이는 저자가 번역 출판을 허가하지 않아 저작권이 소멸될 때까지 번역 출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1〉

7,500편, 26상자에 달하는 멩거의 방대한 유고는 1987년 그의 손녀인 에페 멩거(Eve L. Menger)가 듀크대학에 기증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3상자는 경제학용어에 관한 정의, 철학, 과학의 본질에 관한 연구를 메모한 것이다(notebooks, ca. 1867-1920, box nos. 1-3). 3번부터 9번까지 6상자 반은 『原理』를 참다운 일반이론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의 결과를 담고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870년부터 1919년 사이에 집필한 것이다(note on economic principles, ca. 1870-1919, box nos. 3-9). 이밖에도 1890-1919년간에 집필한 화폐이론에 관한 초고집이 5상자(notes on money, ca. 1890s-1919, box nos. 9-13), 1860년대부터 1919년 사이에 집필한 방법론 관련 원고가 7상자(notes on methodology, 1860s-1919, box nos. 14-20), 대학강의를 위한 준비재료가 1상자(teaching materials, 1872, 1884-1894, and n.d., box no. 13), 서신류가 1상자(correspondence, 1863-1918, 1921-85, box no. 20), 자기 생애, 기탁과 관련된 자료가 1상자(biographical and personal materials, 1860s-, box no. 21), 가족 관련 자료가 2상자(related family materials, box nos. 22-23), 기타 잡다한 내용의 것 1상자(miscellaneous, undated, box no. 23), 인쇄물 3상자(printed matter, box nos. 24-26)가 그 내용이다. 유고분량을 보더라도 그가 『原理』의 개정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족히 짐작할 수 있다.

미완으로 끝난 『一般理論』(이하에서는 『原理』 제2판을 『一般理論』으로 부르기로 한다) 초고는 그의 아들 칼 멩거가 리히아르트 쉐러(Richard Schüller)의 서문과 함께 1923년에 비엔나에서 간행하였다.

『原理』는 그가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 增刷하는 것조차 금지한 까닭에 자연히 희귀본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原理』를 포함한 멩거의 전저술이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經濟學 및 政治學 稀貴本 複寫叢書”(Series of Reprints of Scarce Tracts in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로 1933-1936년간에 4권으로 발간되었다. 즉 『原理』는 하이엑이 쓴 서문과 함께 1934년에 총서 제17권으로, 『方法論』은 총서 제18권으로 1933년에 복각되었다. 방법론과 관련된 소책자 및 논문들은 1935년에 『國民經濟學의 方法 및 歷史에 관한 論文集』(*Kleinere Schriften über die Methode und Geschichte der Volkswirtschaftslehre*)으로 총서 제19권으로, 화폐이론에 관한 7개 논문은 총서 제20권으로 1936년에 『貨幣理論과 通貨政策에 관한 論文集』(*Schriften über Geldtheorie und Währungspolitik*)으로 간행되었다.

1.3. 오스트리아學派의 形成⁽⁴⁾

『原理』가 출간된 10년 후부터 멩거의 주장에 동조하는 저술들이 잇달아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출판된 책은 뵘-바베르크가 1881년에 저술한 『法과 經濟的 財産 學說의 視角의 關係』(*Recht und Verhältnisse von Standpunkt der wirtschaftlichen Güterlehre*)였다. 이어 그는 『資本과 利子』(*Kapital und Kapitalzins*)의 첫째 권인 『資本利子理論의 歷史와 批判』(*Geschichte und Kritik der Kapitalzinstheorie*)을 1884년에, 또 1889년에는 그 둘째 권인 『資本의 實證理論』(*Positive Theorie des Kapitals*)을 출판하였다. 멩거의 이론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고 확장, 응용한 뵘-바베르크의 주장에 대하여 멩거가 전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어 그는 1886년에 『經濟的 財貨價値理論 要綱』(*Grundzüge einer Theorie des wirtschaftlichen Güterwertes*)을, 1896년에는 『맑스 體系의 終焉』(*Zum Abschluß des Marxschen Systems*)도 발표하였다. 이것은 마르크스 『자본론』에 대한 한계 학파의 최초의 조직적, 근본적인 비판서이다.

후에 멩거의 비엔나대학 정교수직을 계승하게 된 비저는 1884년에 『經濟的 價値의 源泉과 主要法則』(*Ürsprung und Hauptgesetze des wirtschaftlichen Wertes*)을, 1889년에는 『自然價値』(*Der natürlichen Wert*)를, 그리고 1914년에는 『社會的 經濟의 理論』(*Theorie der gesellschaftlichen Wirtschaft*)을 저술하였다. 오스트리아학파의 형성에는 이들 두 사람의 학문활동이 크게 기여한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멩거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경제학자로서 마타야(V. Mataya)는 1884년에 『企業家利潤』(*Der Unternehmergeinn*)을, 그로스(G. Gross)는 같은 해에 『企業家利潤學說』(*Lehre von Unternehmergeinn*)을 출간하였다. 오이겐 필리포비치 폰 필립스베르크(Eugen Philippovich von Philippsberg)도 『政治經濟學의 基礎』(*Grundriß der politischen Ökonomie*)

(4) 이 대목은 Hayek(1934) 및 Hayek(1968)에 많이 의존하였다.

를 1893-1907년 사이에, 『政治經濟學의 課題와 方法』(*Über Aufgabe und Methode der politischen Ökonomie*)을 1886년에 저술하여 멩거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독일 학파와의 절충, 연계를 도모하였다.

로버트 주케르칸들(Robert Zuckerkandl)은 1889년에 『學問의 社會的 發展에 重点을 둔 價格理論』(*Zur Theorie des Preises mit besonderer Berücksichtungen der gesellschaftlichen Entwicklung der Lehre*)을 출판하였고 에밀 삭스(Emil Sax)는 『國民經濟의 本質과 課題』(*Das Wesen und die Aufgabe der Nationalökonomie*) (1884), 『國家經濟理論의 基礎』(*Grundlagen der theoretischen Staatswirtschaft*) (1887), 『國民經濟理論의 새로운 進展』(*Neueste Fortschritte der nationalökonomischen Theorie*) (1889)을 저술하였다. 로버트 마이어(Robert Meyer)는 1887년에 『所得의 本質』(*Das Wesen des Einkommens*)을, 한스 폰 슈ullen-쉬라텐호펜(H. von Schullen-Schrattenhofen)은 1889년에 『地貸의 概念 및 本質 研究』(*Untersuchungen über Begriff und Wesen der Grundrente*)를, 코모치아스키(J. von Komorzyaski)는 『閉鎖經濟에 있어서의 價値』(*Wert in der isolierten Wirtschaft*)를 1889년에 저술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멩거 이론을 근원으로 하여 오스트리아학파가 경제학계에 확고히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들 2세대 경제학자들을 이은 3세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로는 루드비히 폰 미세스(Ludwig von Mises), 리히아르트 스트리글(Richard Strigl), 에발트 샴스(Ewald Schams), 레오 일리(Leo Illy)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문적 폭이 워낙 커서 오스트리아학파에 잡아가두기 어렵다는 평을 듣는 조셉 슈페터(Joseph A. Schumpeter)도 이 학파 출신이고 알프레드 아몽(Alfred Amonn) 역시 제3세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이다.

제4세대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로는 프리드리히 폰 하이엑(F.A. von Hayek), 고트프리트 하벌러(Gottfried Haberler), 프리츠 매크럽(Fritz Machlup), 알렉산더 마르(Alexander Mahr), 오스카 모겐슈턴(Oskar Morgenstern), 폴 로젠슈타인-로단(Paul N. Rosenstein-Rodan)을 꼽을 수 있다. 그리하여 나치스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고 비엔나대학을 중심으로 한 오스트리아학파 경제학자들이 그야말로 散之四方하기 이전 즉 1920년대까지는 “오스트리아학파는 탁월하였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Galbraith and Salinger (1978)).

독일어권 이외 국가에서 활약한 경제학자 중 『純粹經濟學原理』(*Principii di economia Pura*) (1889)를 저술한 판탈레오니(M. Pantaleoni)와 코사(L. Cossa), 그라지아니(A. Graziani), 마졸라(G. Mazzola) 등 이탈리아 경제학자들이 멩거 학도로 꼽힌다. 이밖에도

피어슨(N.G. Pierson) 등 네덜란드 경제학자, 지드(Ch. Gide), 빌리(E. Villey), 쉐시에땅(Ch. Secietan) 등 프랑스 경제학자, 패튼(S.N. Patten), 엘리(R. Ely) 등 미국 경제학자, 마샬(A. Marshall), 보나(J. Bonar) 등 영국 경제학자가 오스트리아학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4. 獨逸學派와의 關係⁽⁵⁾

멩거는 당시 독일경제학계를 주름잡던 신역사학과 경제학자들 특히 그 영수였던 슈몰러와 격렬한 방법론쟁을 전개하였으나 처음부터 독일 경제학계를 적대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독일학계가 경제학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오스트리아 경제학계에 베푼 혜택을 대단히 고마워하였다. 또 빌헬름 로셔(Wilhelm Roscher)에 대해서는 깊은 존경심을 표시하기까지 하였다.

사실 그는 처녀작인 『원리』를 독일경제학계의 태두 로셔에게 헌정하였으니 『原理』 안표지에 ‘작센 당국 추밀원고 문관이며 라이프찌히대학 국가학 및 재정학 교수이신 빌헬름 로셔 박사(Dr. Wilhelm Roscher)에게 삼가 바친다’고 했던 것이다. 또 이에 머무르지 않고 그는 『원리』서문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각별히 기뻐던 것은 이 책에서 전개된 국민경제학의 가장 일반적인 이론들을 포섭하는 영역이 그 적지 않은 부분을 본래 독일국민경제학의 최근 발달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며 이 책이 하고 있는 국민경제학 최고원리에 대한 개혁 시도가 거의 예외 없이 독일적인 篤學心이 낳은 예비업적에 기초한 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바라건대 이 책을 같은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오스트리아로부터 보내는 정겨운 인사로서, 또 독일이 보내주었던 것처럼 많은 탁월한 학자와 그들의 훌륭한 저술을 통하여 독일이 우리들 오스트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것처럼 풍부하게 부여했던 학문적 자극에 대한 가냘픈 반향이라고 생각하여 주기를 바란다(Menger(1871)).

고 말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멩거는 독일경제학계의 학문적 성취 및 오스트리아 각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독일출신 경제학교수들의 학문적, 교육적 기여에 대하여 걸치레인사와는 다른,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독일 학계의 학문적 성취와 독일출신 교수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원리』에서 그 시대의 가장 표준적인 교과서를 저술한 구역사학과 태두인 로셔를 가장 많이, 즉 17회나 인용하였다. 또 독일 경제학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5) 이 대목은 Streissler(1990)를 많이 참조하였다.

프리드리히 헤르만(Friedrich Herman)을 두 번째로 많이 12회나 인용하였다. 그 다음이 아담 스미스로 11회 인용되었고, 세이(J.B. Say) 인용이 10번, 멩거의 비엔나대학 바로 선임교수였던 알베르트 셰플러(Albert Schäffler)도 10회 인용되고 있다. 뵘-바베르크 및 비저의 스승인 칼 크니스(Karl Knies)는 9회, 아리스토텔레스도 9회 인용되었고, 콩디악(E.B. de Mably de Condillac)이 8회, 라우(K.H. Rau)와 튀르고(A.R.J. Turgot)가 다 같이 7회 인용되고 있다.

가장 빈번하게 인용된 경제학자 10명 중 독일 경제학자가 5명, 프랑스 경제학자가 3명, 고대 그리스 학자 1명, 영국 경제학자가 1명이었다. 이는 멩거가 영국 경제학 문헌에 어둡기 때문이 결코 아니다. 이는 밀(J.S. Mill), 리카도(D. Ricardo)가 각기 6회, 캐리(H.C. Carey), 로더데일(J.M. Lauderdale), 맥컬로크(J.R. McCulloch), 맬더스(T.R. Malthus)가 각기 5회씩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로 알 수 있다[Streissler(1990)].

독일 역사학과 경제학자들도 처음부터 멩거를 적대시하거나 『원리』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원리』를 봉정받은 당사자인 로셔는 역사학과 경제이론의 기초를 확립한 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歷史的 方法에 의한 國民經濟學 講義要綱』(*Grundriß zu Vorlesungen über die Staatswirtschaft nach Geschichtlicher Methode*) (1843) 제12판(1875)에서 당시 멩거보다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슈타인의 책을 7군데서 인용하고 있는데 슈타인보다 후배이고 겨우 처녀작을 발표하였을 뿐인 멩거를 마찬가지로 7회나 인용하고 있다. 신역사학파의 리더 지위를 굳혀가고 있던 슈몰러를 로셔가 겨우 3번 인용하였을 뿐이라는 사실까지 감안한다면 이는 파격적인 대우라는 것이 스트라이슬러의 판단이다[Streissler(1990)]. 더욱이 경제사상사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이를 적절히 구사하고 활용했던 것으로 유명했던 로셔가 『獨逸의 國民經濟學史』(*Geschichte der National-Oekonomik in Deutschland*) (1874)에서 루요 브렌타노(Lujo Brentano)에 대한 언급을 한 줄이 채 안되게(반 行임) 한 데 반하여 멩거에 대하여서는 장장 4행에 걸쳐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멩거에 대하여

헤르만 학풍을 좇고 있는 경제학자 중에서 마침내 칼 멩거가 나타났다. 그는 매우 추상적이며 항상 독자적이며 지극히 유용한 개념 분석을 빈번히 구사하고 있으며 그같은 분석은 경제사상사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그는 가격형성 문제를 처음에는 고립된 주체간 교환현상으로 시작하여 독점적 교환으로 진일보하고 최종적으로는 매매쌍방에 미치는 경쟁효과까지 분석하고 있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로셔의 이 구절은 후에 멩거를 비엔나대학 정교수로 추천할 때

인용되기까지 하였다)(Streissler(1990)).

따라서 安井 琢磨가 『原理』 일본번역판 서문에서 “멩거의 제1작인 『原理』는 독일 경제학자 사이에서는 목살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Menger(1937)).

스트라이슬러는 멩거가 독일 경제학계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의 학문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바 있고 독일 경제학계도 멩거에 대하여 소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강조하고 있다 [Streissler(1990)].

첫째, 멩거는 처녀작인 『原理』를 로셔에게 헌정하고 있다.

둘째, 『원리』에서 멩거는 로셔를 17회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장 많은 인용이다. 로셔 다음이 헤르만으로 12회, 스미스가 그 다음으로 11회, 세이가 10회 인용되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이미 말한 바 있다.

셋째, 멩거는 비엔나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쿠들러(Josef von Kudler)가 저술한 경제학교과서인 『國民經濟學의 基礎學說』(Die Grundlehren der Volkswirtschaft) (Vienna, 1846)을 註釋을 달아가면서 정독하였다(이 책은 일본 一橋대학 멩거 문고에 지금도 남아 있다).

넷째, 멩거는 프라하대학에서 피터 미슬러(Peter Mischler)에게 배웠을 것이고 그의 저서 『國民經濟學原理』(Grundsätze der Nationalökonomie) (Vienna, 1857)를 분명 읽었을 것이다.

다섯째, 비엔나와 150마일 떨어져 있는 페스트대학 줄리어스 카우츠(Julius Kautz) 교수가 쓴 『國民經濟學의 理論과 歷史』(Theorie und Geschichte der Nationalökonomie) (Vienna, 1858)에 고센(Gossen)의 이론이 소개되어 있으며 스탠리 제본스(Stanly Jevons)도 이 책을 통하여 고센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박학한 멩거가 이 책을 통하여 독일 경제학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리가 없다.

여섯째, 『原理』가 간행된 직후인 1872-1875년 사이에 오스트리아 이외의 독일어권 대학 중 칼스루에기술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Karlsruhe), 쾰리히공과대학(Polytechnical University of Zürich) (이 경우는 쾰리히대학 교수까지 겸하도록 요청되었다), 바젤대학 등 세 대학에서 교수 초빙 제의가 있었다.

비저도 學術院(Academy of Sciences)에서 한 멩거 조사에서 “멩거의 『原理』는 그 주요한 부분이 독일 전통 경제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며 …… 욕망, 재화, 사용가치, 교환가치 등 기본개념은 모두 독일 경제학교과서에서 그대로 빌려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볼 때 비록 멩거 및 오스트리아학과 제1세대 경제학자들이 슈몰러 및 신

역사학과 경제학자들의 독일 경제학을 상대로 격렬한 방법논쟁을 전개하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토론이었지 감정싸움은 아니었다. 더구나 그것은 安井 琢磨가 해석하듯 독일 경제학계가 멩거에 대하여 적의를 품고 『원리』를 무시한 때문에 일어난 감정싸움은 결코 아니었다.

스트라이슬러는 독일 경제학과 오스트리아학파간의 장벽은 오스트리아학과 제2세대 경제학자인 슈페터와 미세스 그 중에서도 특히 슈페터의 철두철미한 親英反獨 주의에 연유한 바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증거로 그는 제1차 세계대전 중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영국과의 단독강화까지 획책하였던 슈페터의 각료활동까지 언급하고 있다.

슈페터의 배독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고 후에 그는 나치스 독일의 침략을 피하여 오스트리아를 떠난다. 그러나 1920년대가 되면 오스트리아학과 경제학은 비단 독일 경제학을 압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 경제학계는 물론 세계 경제학계를 풍미하기에 이른다.

2. 人間經濟의 두 가지 基本方向

2.1. 『原理』에서 보인 態度

『국민경제학원리』의 첫머리에서 ‘인간만사는 因果關係 法則에 지배된다’고 말한 멩거는 인간과 재화, 재화에 대한 人間慾求(Bedarf = requirements)와 이용가능한 재화수량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Menger(1871)).

- a. 욕구가 이용가능량보다 큰 경우,
- b. 욕구가 이용가능량보다 적은 경우,
- c. 욕구와 이용가능량이 같은 경우.

욕구가 이용가능량보다 크다는 관계를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종전에는 완전히 충족되었던 人間慾望(Bedürfnisse = need) 중 일부분이 충족되지 못하게 된다거나 또는 종전에 비하여 불 만족스럽게 충족된다든가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결코 그 유용한 속성을 상실한다든가 인간지배에서 떨어져 나가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사람들은 동시에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인식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1. 그같은 수량관계하에 있는 재화 매단위를 자기 지배하에 계속 두고자 하고,
2. 재화가 갖는 그같은 유용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같은 수량관계하에 있는 재화에 대하여 욕망충족과 관련된 事前配

慮(Vorsorge) 행위를 함에 있어

3. 문제된 이용가능량으로 충족시키게 될 좀 더 중요한 욕망과 충족시키지 못하고 단념해야 할 욕망간의 선택을 하고

4. 주어진 양의 재화로 가능한 최대한의 성과를 얻고자 또는 가능한 최소한의 재화를 가지고 일정한 성과를 얻고자 하게 된다.

이같은 네 가지 목적을 향한 복합적인 인간행위를 멩거는 經濟(Wirtschaft) 또는 節約(Wirtschaftende = economizing)이라고 불렀다. 또 그같은 수량적 인과관계에 있는 재화를 經濟財(Wirtschaftlicher Güter)라 하고 경제재만 경제(= 절약)행위의 배타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가능량이 욕구보다 클 경우 이용가능량으로 충족시켜야 할 욕구와 충족시키지 못한 채 포기해야 할 욕구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멩거는 말한다. 이용가능량이 충족시켜야 할 욕구보다 클 경우 충족시키지 못한 채 포기하여야 할 욕구란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이같은 욕구충족에 투입되는 재화는 人間經濟(Menschliche Wirtschaft)의 대상이 아니며 그같은 이유로 멩거는 이를 非經濟財(die nicht ökonomischen Güter)라고 불렀다.

이같은 고찰에서 우리는 재화가 갖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성격이 재화에 부수된 성질 또는 재화 자체의 특성에 연유하는 것이 아님을 즉시 알 수 있다. 모든 재화는 그 내적 속성 또는 외적 계기와는 관계 없이 인간욕구와의 수량적 과부족관계에서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경제적 성격을 상실하기도 한다.

같은 종류의 재화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경제적 성격을 갖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 또 동일장소에서도 상황이 변화하는 데 따라 같은 재화가 경제적 성격을 갖기도 하고 이를 상실하기도 한다. 이 모든 것이 수량적 과부족관계라는 동일한 이유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멩거는 주장한다.

멩거에 의할 때 비경제재가 경제재로 바뀌는 이유는 오직 두 가지, 즉 인간욕구가 증가하거나 재화의 이용가능량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인간욕구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멩거는 (1) 인구증가, (2) 인간욕망의 증가, (3) 재화와 인간복지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인간지식이 증대한 결과 재화가 새로운 사용목적에 갖게 된 것 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Menger(1871)]. 이용가능량과 욕구가 동일한 크기를 갖는 특수한 사례로 멩거는 문명국가에서의 초등학교 교육이나 질 좋고 위생적인 식수를 들고 있다. 이러한 재화는 경제재와 비경제재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들 재화는 사회적으로는 특별한 중요성을 갖지만

소비자에게는 경제적 성격을 갖지 못한다.

인간욕구보다 훨씬 수량이 많은 재화일지라도 권력자가 자기 이외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지배하는 것을 금지할 때 그 재화는 경제재가 된다고 멩거는 말한다. 예컨대 숲이 울창한 카르파티아(Carpathia) 산맥지대에서는 주민들이 욕구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숲에서 썩어 없어진다. 그런데도 권력자가 주민들의 목재채취량을 통제하기 때문에 목재는 경제적 성격을 갖게 된다.

끝으로 현재는 비경제재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장래발전을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점에서 이미 경제재와 동일시되는 재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멩거는 말한다. 어떤 비경제재의 지배량은 계속적으로 감소한다든가 또는 그 재화에 대한 욕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한다든가 하면 궁극적으로는 그 재화의 비경제적 성격이 경제적 성격으로 전환한다. 이같은 전환을 예상케 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비록 그 재화에 경제적 성격을 부여할 기초가 되는 수량관계가 아직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經濟人(Wirtschaftende Mensch)은 그 재화의 구체량을 장래기간을 위한 자기 경제행위의 대상으로 삼고 사회관계상 자기 개인적 욕구를 당해 수량의 점유를 통하여 확보하고자 한다. 이 때문에 비경제재라고 생각되는 재화에 대해서도 소유권이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멩거는 주장하고 있다.

경제행위의 배타적 대상이 될 수 있는 재화에 관한 상술한 바와 같은 고찰을 근거로 멩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경제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문명사회에 사는 사람들만이 단기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을 대상으로 욕망충족을 위한 계획을 한다. 문명사회인은 장차 닥쳐올 여러 해 동안의 욕구의 충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사실 문명사회인은 자기들 일생을 위해 계획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은 일반적으로 그들 자손의 욕구충족을 위한 수단이 모자라게 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한다.

이어 그는 욕구충족을 위한 사전배려 노력이 성공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 계획기간 중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화수량에 대한 지식, (b) 이들 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화수량에 대한 지식이 곧 그것이다. 첫째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인간의 사전배려행위는盲目的인 것이 된다. 한편 둘째 사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사전배려행위는 無計劃的인 것이 된다. 멩거는 두번째 사실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상호간 교역량이 많지 않을 경우 사람들은 분명히 상대방 손안에 재화가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적을 것'이라

고 말하여 교역량이 많을수록, 바꾸어 말하면 분업이 발달할수록, 따라서 경제가 발전한 사회일수록, 즉 소위 문명사회일수록 두번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그 결과 경제행위는 합리적, 효율적인 것이 될 것으로 시사하였다.

2.2. 『一般理論』에 展開된 見解

이처럼 선택 또는 절약이 없는 행위는 비록 그같은 행위가 궁극적으로는 욕망충족용 물질적 수단을 공급해주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제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했던 멩거는 『일반이론』에서는 근본적으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그는 『일반이론』에서 완전히 새로 추가한 제4장 제3절 “人間經濟의 두 가지 基本方向”에서 인간의 경제행위에는 기술적 방향과 경제적 방향이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같은 인식을 토대로 『원리』에서 비경제적 행위로 정의하여 사상하였던 인간활동 역시 경제행위라고 규정하였다. 그가 제4장 제3절 b에서 논한 인간경제의 節約化·經濟化 方向(sparende, ökonomisierende Richtung)은 『원리』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 경제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제4장 제3절 a에서 技術的·經濟的 方向(technisch-ökonomisch Richtung)이라고 한 것은 그가 『원리』에서 비경제체이기 때문에 경제행위 대상 따라서 경제분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사상했던 인간행위 측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그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명칭을 우리 언어감각에 맞게 명확히 구별짓기 위하여 멩거가 기술적·경제적 방향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기술적 방향으로, 절약화·경제화 방향이라고 부른 것은 경제적 방향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멩거는 욕망이 발생하자마자 그 종류와 정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되지 않고 그 욕망충족에 유용한 재화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다면 절약·경제의 필요성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이 작위를 가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자연환경 때문에 욕망충족이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상황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멩거는 솔직히 시인한다. 욕망충족수단을 제공해주는 자연환경이 워낙 풍족하면 이들 욕망충족 수단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노동급부는 사실상 무시할 수 있거나 지극히 사소할 것이다. 이럴 경우 절약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범주에 속하는 재화는 극히 적다. 대다수 재화는 우리가 장래 기간 중에 지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문명사회적 상례다. 바로 이것이 인간경제에 대하여 한 가지 특별한 방향을 갖게끔 하는 궁극적 원인이라고 멩거는 주장한다. 사람들은 각 시점별로 그들을 둘러싸게 될 상황을 예측하고 이에 맞는 사전배려활동을 한다. 그런데 우리 욕망을 충족시켜줄 재화가 직접 제공되지 않고 그 대신 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이 제공될 뿐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재화에 대한 궁극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생산수단에 대하여 목표와 방향을 정해줄 배분적 활동이 필요해진다. 이같은 배분적 활동 및 그 활동에 의해 조건지워지는 인식 활동을 멩거는 기술적·경제적 방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다(Menger(1923)).

그는 기술적·경제적 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 재화에 대한 장래 욕망의 예상, 욕망의 종류 및 크기 그리고 이같은 욕망이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인식.

2. 이들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직접 지배가능한 재화의 종류와 규모, 또 이들 재화를 우리가 지배할 수 있게 될 장소와 시간에 대한 인식.

3. 우리가 직접 지배할 수 있는 재화만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미충족 욕구에 대한 인식 및 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수단에 대한 인식(생산수단과 재화간의 기술적 관련에 대한 인식).

4.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생산수단에 대하여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고 궁극적인 재화에 대한 욕구를 장소, 시간, 품질, 수량 등 모든 면에서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게끔 하는 배분적 행위.

모든 재화가 품질과 수량 양면에서 욕망충족을 위하여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그 재화의 획득을 위한 기술적 노동이 아무런 복지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간 경제의 기술적 방향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 멩거의 생각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재화에 대한 욕구, 그같은 욕구가 발생하는 장소와 시간 및 종류와 규모,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성질과 생산물에 대한 그 생산수단의 기술적 관련에 대하여 장래기간에 걸친 판단을 하고 이같은 판단에 근거하여 생산수단을 배분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그는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원리』에서 비경제재를 대상으로 경제행위가 발생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경제학적 연구 대상에서 배제했던 멩거는 『일반이론』에서는 완전히 입장을 달리한다. 그는 재화 수량과 욕망 사이에 전자가 후자보다 큰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재화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의 장래에 걸친 배분과 관련하여 경제학적 고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때 당해 생산수단도 결코 희소하지 않고 욕망충족에 이용될 재화를 충분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 시간과 장소, 종류와 규모, 품질과 수량 등 모든 면에서 풍부한 것은 물론이다.

희소성 공준이 지배하는 경우 재화는 절약 = 경제 행위의 대상인 경제재가 되고 당연

히 절약화·경제화라는 인간 경제의 또 다른 기본방향이 출현한다.

인간 경제의 두 가지 기본방향인 기술적 방향과 경제적 방향은 서로 독립된 것으로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전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얽혀서 이들 두 가지 기본방향은 거의 예외 없이 결부되어 동시에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가지 기본방향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서로 독립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욕구에 비하여 그 충족 수단이 큰 비경제재의 경우에는 경제적 방향에 의한 영향은 전혀 받지 않는다. 비경제재는 경제적 방향을 전제하지 않고 또 경제적 방향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경제재의 획득을 위한 기술적 노동은 경제적 성격을 갖는다고 멩거는 말한다.

기술적 방향과 경제적 방향이 서로 결부되어 나타난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인간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멩거는 주장한다(Menger(1923)).

1. 일정한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최소비용으로 거두거나(최소비용 원리) 또는 일정한 경제재로가능한 최대의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거두려는(최대성과 원리) 노력.
2. 재화에 대한 지배량이 욕망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을 경우 더 중요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덜 중요한 욕망의 충족은 미루는 쪽으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자 하는 노력.
3.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기술적 생산과정에서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경제적 소비재를 생산재로, 또 생산재를 경제적 소비재로 전환하려고 하는 노력.

『일반이론』에서도 비경제재 또는 기술적 방향에 대한 논의는 이상에서 본 것으로 그친다. 멩거는 제5장에서 욕구가 재배가능량보다 클 경우 재화는 경제학에서 가치라고 부르는 의의를 갖게 된다고 하여 가치론으로 전환한다. 그리고 가치론에 근거하여 제6장에서는 교환이론을, 제7장에서는 가격이론, 제8장에서는 상품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인간 경제의 기술적 방향에 관한 이론은 또다시 ‘일반이론’의 틀에서도 사라져 버리고 만다.

3. 實體合理性和 形式合理性

3.1. 칼 플라니와 實體合理性

멩거가 『일반이론』에서 밝힌 두 가지 기본방향을 모두 포섭하는 이론이야말로 참다운 ‘經濟學 一般理論’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멩거도 『원리』의 개정에서 착수하면서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란 제목은 개정작업을 시작하면서 바로 Allgemeine

Theoretische Wirtschaftslehre라고 고쳤던 것이다. 멩거의 아들 칼 멩거(Karl Menger)에 의할 때 멩거는 이미 1880년대 연구계획으로 『원리』의 개정 방향을 이같이 확정지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기본방향을 모두 만족시키는 작업은 사실 지극히 어려운 것이어서 멩거도 『일반이론』에서 기초적인 틀을 약간 서술한 데 그치고 만 것은 2.2.에서 본 바와 같다.

‘經濟的’(economic)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탐구한 학자는 칼 폴라니였다. 폴라니는 ‘經濟的’이란 낱말은 전혀 근원이 다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하나를 實體的 意味(substantive meaning), 다른 하나를 形式的 意味(formal meaning)로 구별하고 있다. 형식적 의미는 논리에 근거하며 실체적 의미는 사실에 근거하는데 양자에 공통되는 점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 폴라니의 생각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제란 부족한 수단을 대안적 용도에 사용할 때 당면하게 되는 선택행위에 관한 준칙과 관련된다. 이에 반하여 실체적 의미의 경제는 선택이나 수단 부족을 전제하지 않는다. 다만 자본주의시장경제가 등장하면서 적어도 그 초기 2백년간에는 실체적 의미의 경제와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공교롭게도 일치될 수 있었고 그러한 일치를 가능케 한 것이 價格 形成 市場(price-making markets)이었다. 이 때문에 문외한은 말할 것도 없고 알프레드 마샬, 빌프레도 파레토, 에밀 뒤르켐(Emil Durkheim)같은 탁월한 사회경제학자들조차도 그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막스 베버와 그 뒤로는 탈코트 파슨스(Talcott Parsons)만이 그 차이를 분간하였지만 그 요점까지 깨달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 폴라니의 생각이다.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별한 학자는 오직 칼 멩거 한 사람 뿐이었다는 것이다(Polanyi(1957)). 막스 베버는 形式合理性(formal rationality)과 實體合理性(substantive rationality)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확충하고자 하였다. 베버는

경제행위의 형식합리성이란 용어는 양적 계산법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며 …… 난점이 많은 개념인 실체합리성은 형식합리성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행위를 유발하는 특정 목표와 관련시켜 판단해야 하는데 그 경우 합리성의 기준이 될 가치는 무수히 많다.

고 말한 바 있다[Weber(1947)].

폴라니는 실체적 의미의 경제란 인간 생활이 자연과 동료인간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물질적 욕망충족 수단의 끊임없는 공급을 결과하는 인간과 자연·기술·사회환경간의 상호교환이 곧 실체적 의미의 경제다. 이에 반하여 형식적 의

미의 경제는 儉約(economical) 또는 節約(economizing)이란 용어에서 분명하듯 수단·목적관계가 갖는 논리적 성격에서 출발한 것이다. 수단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 수단을 서로 다른 용도 중 어느 하나에 이용한다는 특정한 선택 상황을 말하는 것이 형식적 의미의 경제다. 이제 플라니의 이론을 중심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제와 실체적 의미의 경제가 갖는 차이점 내지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사실이 아닌 논리에서 출발하며 수단은 불충분하면서도 여러 가지 대안적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 형식합리성은 수단이난 목적과 관계있는 것이 아니다. 죽고자 하는 것보다 살고자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결코 전제하지 않는다. 또 수단도 목적 달성에 유용하기만 하면 무엇이든 관계없다. 과학의 힘으로 장수하는 것이나 미신의 힘으로 장수하는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합리성이란 단지 목적·수단간 관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생각하는 형식합리성론자들은 욕망 충족을 위한 수단은 충분하지 못하는데도 목적은 다양하므로 인간의 경제행위에는 항상 선택이 강요된다. 다만 유한한 수단은 여러 가지 대안적 용도에 사용될 수 있고 또 목적은 중요성 순서대로 배열할 수 있다. 그래서 욕망충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절약행위 즉 경제행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생각은 리오넬 로빈스(Lionel Robbins)에 의해 명확하게 정식화되었다. 그는 (1) 목적은 다양하고 (2) 목적달성을 위한 시간과 수단은 제한되어 있으며 (3) 이들 유한한 수단은 여러 가지 대안적 용도에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4) 목적은 서로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선택행위로서의 경제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경제학이 수많은 목적과 대안적 용도를 가지고 있는 희소수단간 관계로서의 인간행동을 연구하는 과학'이라고 정의하였던 것이다[Robbins(1932)].

플라니는 형식합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선택 법칙이 과거 2세기 동안 서유럽과 북미 사회에서는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적용되었다고 말한다. 선택 법칙이 실제 경제사회에서 정확히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은 가격 형성 시장이 그 기반이 된 때문이다. 가격 형성 시장 체계하에서 욕망충족수단은 화폐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화폐는 교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불충분한 실정이므로 시장참가자들은 반드시 선택을 하도록 강제된다. 플라니는 이러한 체제하에서는 형식적 의미의 경제와 실체적 의미의 경제는 완전히 일치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간생활, 인간경제의 기초가 되는 機構(institution)는 가격 형성 시장 이외에도

여럿이 있었고, 있으며, 또 있을 수 있다. 形式經濟學(formal economics)이 가격기제에 의해 기능하는 시장체제적 경제현상을 가장 훌륭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격 형성 시장이 아닌 다른 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현상이 형식경제학적 분석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가격 형성 시장에서 형식적 의미의 경제는 실체적 의미의 경제와 완전히 일치되었었다. 이 때문에 가격 형성 시장의 등장과 동시에 성립되었고 또 가격 형성 시장 현상의 설명원리로 등장한 형식경제학은 모든 종류의 경제현상, 가격 형성 시장과는 전혀 다른 기구에 뿌리내린 경제나 경제과정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었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Polanyi(1957)).

실체경제학에서는 수단이 부족하지 않을 상황하에서도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서도 수단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또 수단의 풍족이 오히려 선택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으며 희소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합리적 행동이 유도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실체경제학의 근원은 經驗的 經濟(empirical economy) 즉 욕망충족을 위한 물질적 수단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인간과 그 동료 및 환경간의 制度化된 相互作用 過程(an instituted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man and his environment, which results in a continuous supply of want satisfying material means) 바로 그 자체인 것이다. 이때 환경에는 自然環境, 技術環境, 社會環境(natural, technological, and societal environments) 셋이 있다. 제도에는 互酬(reciprocity), 再分配(redistribution), 交換(exchange)이라는 서로 다른 통합 유형 즉 경제에 통일성과 안정성을 부여하는 요소에 의하여 서로 다른 형태를 갖는다.

호수란 균질적 집단내에서 서로 맺어져 있는 구성원 사이의 이동을 표시하는 것이다. 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족같은 均質的으로 整備되어 있는 集團(symmetrically arranged groupings)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한편 재분배는 중심을 향한, 또 중심을 출발점으로 하는 소유이전을 표시한다. 재분배는 中心-周邊關係(centricity in the group)의 존재를 전제한다. 끝으로 교환이란 시장체제하에서 손(hands) 즉 독립된 경제주체간에 일어나는 급부·반대 급부적 이동을 말한다. 교환이 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價格形成 市場 體制(a system of price-making markets)가 존재하여야 한다. 이처럼 기구에는 호수, 재분배, 교환이 있고 이들 세 기구는 서로 다른 존립요건, 서로 다른 운동양식을 요구한다.

교환에도 한정 교환(A↔B), 일방적 증여(A→B) 및 일반 교환($\begin{matrix} A \rightarrow B \\ \times \\ C \rightarrow D \end{matrix}$)이 있는데, 형식

경제학은 일반교환만을 분석대상으로 삼고 있다. 한정 교환은 일반 교환을 설명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만 고려될 뿐 그 자체 하나의 독립된 교환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일방적 증여는 비경제적 현상으로 배제되고 있다.

3.2. 人間の 經濟

실재합리성을 배제하고 형식합리성만을 다루고 있는 주류경제학적 접근에 대하여 모리스 고들리에(Maurice Godlier)는

경제적 합리성 특히 경제체계의 합리성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 체계에 필연적으로 강제되는 경제적, 사회적 변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대한의 가능성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고 말하고

우리는 이 가능성과 관련하여 두 가지 평면 즉 의식적으로 창조되고 의욕된 가능성평면과 의식적이든 아니든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 평면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합리성에 있어서도 의도된 합리성과 의도되지 않은 합리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주장하였다. 그는 아장드(Azande)족의 이동농업이 외관상의 무질서에도 불구하고 그 내면에는 엄격하게 숨겨진 질서가 있다는 것, 서아프리카에서 연속경작되는 농지와 비연속적으로 경작되는 토지가 동심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은 비료생산가능성 및 그 운반수단과 엄격한 합리성, 효율성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등을 피에르 드 슈리프(Pierre de Schlippe), 질레스 자우터(Gilles Sautter) 등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예증하고 있다 [Godlier(1972)].

경제의 합리성과 비합리성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고들리에는 본래적인 합리성이나 절대적 합리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늘 합리적인 것이 내일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한 사회에서 합리적인 것이 다른 사회에서는 비합리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배타적인 경제합리성이란 것도 없다. 중요한 점은 합리성 문제를 옳게,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회 생활 구조의 기초, 그 존재 이유와 진화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들 존재 이유와 그 진화는 비단 인간의 의식적 활동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들의 사회활동이 가져온 비의도적 활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인류사회의 발전에 약간의 합리성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합리성의 주체는 그 본성이

나 심리가 시간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 고립되고 미련한 인간이 아니다.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사회관계의 모든 요소에 의하여 영향받는 현실의 인간이 바로 합리성의 주체라는 것이 고들리에의 생각이다.

舊體制(ancien régime)에 대한 반대명제로서 탄생한 경제학은 공업적·상품적 자본주의 경제의 제기능과 관련된 법칙을 그 분석대상으로 삼고 또 이를 합리적 사회원리로 간주하였다. 경제학은 그 탄생 이래 계속해서 이같은 공업적·상품적 자본주의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종사해오면서 이같은 정당화를 절대적인 것으로, 그 설명을 결정적인 것으로 믿어왔고 동시에 공업적·상품적 자본주의의 제규칙은 역사적 우연을 초월하는 自然的 理性(natural Reason)의 제원리와 일치한다고 믿어 왔다. 경제학이 갖는 이같은 특징, 소위 말하는 고전파경제학의 永遠主義(시간적 불변성)와 萬民主義(공간적 균일성)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 역사학파의 경제이론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멩거는 역사학파와 격렬한 방법론쟁을 하면서도 영원주의와 만민주의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꼈던 것이 분명하다.

플라니는 유저인 『人間經濟』에서 인간 경제의 두 가지 기본방향에 대하여 『大轉換』이래 표명하여 왔던 견해를 좀 더 심층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에게 경제란 말은 인간의 생계와 이에 대한 보증 역할을 하는 기술 사이의 도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련의 특별한 동기, 특이한 태도, 고도로 특수한 목적을 말하여 주는 것이고 집단의 물리적 존재, 그 생존의 안전성, 생활방법의 총체는 경제성이나 경제적 이익보다는 항상 우선하여 왔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계가 역전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서 첫째로 천년왕국적 전개를 갖는 기계시대가 막을 올리고 둘째 이같은 전개에 대한 최초의 조정장치로서 시장체계가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플라니는 생각한다.

‘平和의 30年間’이라고 불리우는 1815-1845년 사이에 상품이라는 虛構(fiction)는 노동과 토지에도 적용되어, 노동과 토지도 마치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것같이 취급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간사회의 실체가 뒤바뀌게 되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경제와 시장은 사실상 합치되었다. 인간은 생존수단을 얻기 위하여 자연 및 동료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의존이 이제는 시장통제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리하여 시장은 경제 일만을 흡수하여 市場經濟(market economy)로 발전하였고 시장경제는 다시 경제 이외의 모든 인간활동을 포섭하면서 市場社會(market society)를 탄생시켰다.

인간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는 동기에는 정치, 종교, 미, 금지, 편견, 사랑, 질투 등 무수히 있을 수 있다. 인간은 이같은 동기를 생산을 결과하는 개인적 유인으로 전환시켜 왔었다. 그런데 이때 선택된 동기가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바로 이것

이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시장은 안가진 자에게는 기아에 대한 공포를, 가진 자에게는 이득의 유인을 유일한 원동력으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는 국가와 정부, 거주형태, 개인생활의 미적 부분까지도 이같은 공리주의 패턴을 좇게 하였고 최소한 그것이 시장경제가 작용하는 것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끔 왜곡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왜곡 작용을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시장이 인간본성을 기초로 하여 자연스럽게 탄생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Stanfield(1986)에 의할 때 시장은 밀(J. Mill), 리카도 등의 이론과 정책권고 및 입법활동을 통하여 의도적,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플라니의 유저 표제를 편자인 해리 피어슨(Harry W. Pearson)이 『人間生活』(*The Livelihood of Man*)이라고 했는데, 이는 멩거 『원리』의 개정판인 『일반이론』 제4장 제3절의 소제목 ‘인간경제의 두 가지 기본방향’에서의 ‘人間經濟’ (*Menschliche Wirtschaft*)를 그대로 이용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리고 멩거가 *menschliche Wirtschaft*라고 하였을 때 *Wirtschaft*는 영어의 *economy*가 아니라 主人(*Wirt*)으로서 살림을 돌본다는 독일어 고유의 의미로 사용한 것 또한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4. 맺는 말

플라니와 實體經濟學派(substantivist)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멩거가 제기한, 인간 경제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모두 포섭한 경제학 일반이론을 정립하는 데 우리는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이들의 노력을 통하여 절약화·경제화 방향만 집착하고 있는 形式經濟學(formal economics)과 기술적·경제적 방향까지도 이론의 틀 안에 포섭하려는 實體經濟學(substantive economics) 간의 차이는 비교적 분명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양자의 차이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형식합리성을 절대시하는 형식경제학은 1. 경제를 인간행위 중 특수한 한 가지 즉 절약행위, 2. 개인적 행동 중 욕망충족 과정만을 보며, 3. 타산적 동기만을 고려하고, 4. 희소성을 전제하며, 5. 선택이 없는 상황을 배제하며, 6. 去來(business)를 중시하며, 7. 격식주의, 8. 재산권, 9. 자본, 10. 매매형태를 존중하고, 11. 勢力(power), 사회경제계급, 사회변화를 배제하고, 12. 사회적 분업을 통합하는 수단으로 交換(exchange)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실체경제학은 1. 경제를 문화 즉 생활양식의 구성요소, 2. 사회의 물질생

활 과정으로 보고, 3. 비타산적 동기도 고려하고, 4. 희소성을 반드시 전제하지는 않으며, 5. 선택이 없는 상황도 배제하지 않으며, 6. 産業(industry)을 중시하고, 7. 기술, 8. 생산 수단, 9. 자본재, 10. 경제적 실체를 존중하고, 11. 세력, 사회경제계급, 사회변화를 포섭하고, 12. 통합 유형으로 시장경제에서는 주로 교환을, 비시장경제에서는 호수와 재분배를 인정하고 있다.

인간경제에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본방향이 있으며 이 두 가지 모두를 포섭하는 이론이 참다운 경제학 일반이론일 수 있다고 생각한 멩거가 50년에 걸친 계속적 연구 끝에 몇 절의 추가와 수정만 할 수 있었을 뿐 그 웅대한 구상을 미완의 유고로 남겼듯이 『大轉換』에서 시작하여 『初期帝國의 交易과 市場』으로 계속된 플라니의 연구도 미완의 유고로 끝나고 말았다. 유고를 편집한 피어슨이 “생각컨대 플라니가 10년을 더 살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人間經濟』를 출판할 수 없었을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자기가 계획한 거창한 작업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만큼 인간 경제의 두 가지 기본방향을 모두 포섭하고 경제제와 비경제제를 같은 차원에서 이론 체계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서울大學校 名譽教授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현동 602-216

전화: (02)585-4843

參 考 文 獻

- Barnett, Mason(1990): “The Papers of Carl Menger in the Special Collections Department, William R. Perkins Library, Duke University,”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22**, Supplement.
- Caldwell, Bruce J.(ed.)(1990): *Carl Menger and His Legacy in Economics*,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Galbraith, J.K., and Nicols Salinger(1978): *Almost Everyone's Guide to Economics*, Editions du Seuil.
- Godlier, Maurice(1972): *Rationality and Irrationality in Economic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 Hayek, F.A.(1934): “Carl Menger,” *Economica*, New Series, 1. 4, reprinted in M. Blaug (ed.), *Carl Menger (1840-1921)*, Vermont, Edward Elgar Publishing Company.
- Mendell, Marguerite and Daniel Salie(ed.)(1991): *The Legacy of Karl Polanyi*, London, Macmillan.
- Menger, Carl(1871):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Erster, Wien, allgemeine Teil*, Dingwall, James and Bert F. Hosalitz (trans.)(1981),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_____ (1923): *Grundsätze der Volkswirtschaftslehre*, 2Aufl., mit einen Geleitwort von Richard Schüller aus dem Nachla Herausgegeben von Karl Menger, Wien und Leipzig; 八木紀一郎, 中村友太郎, 中島共郎 譯(1982), 一般理論經濟學, 東京, みず書房.
- Polanyi, Karl(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Boston, Beacon Press.
- _____ (1957): “The Economy as instituted process,” in Karl Polanyi, Conrad M. Arensberg and Harry W. Pearson (ed.), *Trade and Empire in the Early Empire*, New York, The Free Press.
- _____ (1977): Harry W. Pearson (ed.), *The Livelihood of Man*, Academic Press, New York.
- Robbins, Lionel(1932): *An Essay on the Nature and Significance of Economic Science*, London, Macmillan.
- Stanfield, J.R.(1986): *The Economic Thought of Karl Polanyi*, London, Macmillan.
- Streissler, Erich W.(1990): “The Influence of German Economics on The Work of Menger and Marshall,” in Bruce J. Caldwell (ed.).
- Weber, Max(1947):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A.M. Henderson and Talcott Parsons (trans.), New York, The Free Press.
- 安井 琢磨(1937): 『メンガ - 國民經濟學原理』譯者原文, 東京, 日本評論社.